

17. 좌승선(권)공파(左承宣權公派)

권 권, 6세, 좌승선공파 중시조 좌승선(左承宣)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玄覃胤(현담윤) 大將軍門下侍郎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延山君(연산군) 諡 景憲公 (경헌공) 고려 의종, 명종대		德秀(덕수) 兵部尙書 (병부상서) 星山府院君 성산부원군 고려명종대		원빈 都領郎將 도영랑장		敬祖(경조) 司評(사평)		박 中郎將 중랑장		1 權(훤) 文科 (문과)		중랑장공파																	
										2 權(권) 佐丞宣 좌승선																			
										昇 泰 승태		暎 聞 영문		重 厚 중후		系長 계장		碩江 석강		遜 손		忠復 충복		春輔 춘보		澤秀 택수			
																				碩河 석하		淑齡 숙령		世弼 세필		得瑞 득서		龍厚 용후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澤秀 택수	逸尙 일상	剛忠 강충	德明 덕명	萬赫 만혁	處默 처묵	若履 약이	在穆 재목	洛承 낙승	도철道澈 평양군주사 平壤郡主事	신규信圭 산림학자 1912생	정형正馨 공학석사,재미		聖壽 성수																
龍厚 용후	應福 응복	楚鉉 초현	守萬 수만	武昌 무창	鳳麟 봉린	香馥 향복	性裕 성유	學濂 학렴	仁得 인득	道傳 도전	殷泰 은태		흥택興澤 육군정령 1856생		동식東軾 항성YMCA 운동부위원		仁培 인배												

무창 武昌, 19세, 자 성숙(聖淑), 1660년(현종1년)생, 평양거주,

숙종 10년(1684) 갑자(甲子) 정시(庭試) 병과(丙科) 24위 급제

신규 信圭, 25세.

농촌진흥청장, 서울대 농대 교수, 한국의 육종학자, 산림학자

1912년 1월 27일 평안남도 안주에서 아버지 현도철과 어머니 이동일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수원고등농림학교 임학과를 거쳐 1936년 3월 일본 규슈제국대학[九州帝國大學] 임학과를 졸업하였다.

1936년 4월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 기수로 근무하였고 광복 후 1945년 9월 수원농림전문학교 조교수로 임명되어 교육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1945년 10월 미군정청 임업시험장장에 임명되었으며, 1946년 1월 수원농림전문학교 교수, 1949년 7월 일본 규슈제국대학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51~1952년 미국무성 초청으로 미국 산림유전연구소에서 임목육종에 관한 연구를 하고, 1954년 대한민국학술원 자연과학부 회원이 되었다. 1960년 1월 한국임학회 초대회장으로 피선되었으며, 1963년 7월부터 1965년 8월까지 농촌진흥청장을 지냈다. 1965년 8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로 정년 때까지 임학교육에 투신하였다.

미국에서 임목육종을 연구하고 귀국한 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내에 임목육종연구동을 만들어 교잡육종 및 돌연변이 육종에 힘쓰고 당시 리기테다 소나무의 잡종송 종자를 대량생산하는 데 전력하였다. 지금의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의 창설에 기여하였고, 1977년 서울대학교를 정년 퇴임한 뒤 임목육종연구소의 연구고문으로 일하였다.

포플러육종에서는 양황철을 육성하였고, 한국포플러위원회 초대부회장으로 피선되었으며, 여러 번 외국의 학회에 나가 연구내용을 발표하였다. 해충과 추위에 강하고 생장과 재질이 우수한 리기테다 소나무를 개발했다. 리기테다 소나무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탁월한 육종성으로 인정받고, 미국 상원에서도 ‘한국의 기적의 소나무’로 보고 되었다.

이후, 국가적으로 필요한 목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이태리포플러 중에서 한국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뛰어난 품종을 찾아 보급했으며, 그 과정에서 은백양과 수원사시나무를 교배하여 경사진 땅에서 잘 자라는 은사시나무를 개발했다. 또 약재로 쓰이는 백양수피(白楊樹皮)를 얻기 위해 양황철나무도 개발 보급했다.

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1973~1982)을 통한 전국적인 조림사업으로 우수한 임목의 보급을 확대해, 1982년 대한민국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로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국가’로 극찬받았다.

그간 60여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여 임목육종의 학문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국제학술회의에 여러 번 참석하고 1986년 유고슬라비아에서 개최된 IUFRO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1959년 대한민국학술원 학술공로상, 1964년 3·1문화상, 1978년 5·16민족상을 수상하였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관련 미디어/(2) 현신규

흥택 興澤, 27세, 대한제국기 육군부령, 상원군수, 육군정령 등을 역임한 관료

1890년(고종 27) 수안군수·광무국감리(鑛務局監理)를 지냈고, 1894년 친군통위영우부령(親軍統衛營右副領), 1895년 내장원장원사장(內藏院莊園司長)·시위대부령(侍衛隊副領)을 역임했다. 1895년 10월 12일에 왕실 근신인 이재순(李載純)·임취수(林取洙)·이도철(李都徹)·이민굉(李敏宏)·이충구(李忠求)·안경수(安駟壽)·김재풍(金在豐)·이세진(李世鎭) 등과 일부 양인(洋人)까지 포함하여 합작모의를 하였는데, 이들은 죽은 국모(國母)에 대한 복수와 김홍집내각(金弘集內閣)을 타도하고 정부를 개조하여 시국을 수습하자는 기도 아래 병력을 모아 궁궐을 공격한 춘생문사건(春生門事件)이 있었을 때 호응 내지 배후 조정자로 관련되었다.

그 뒤 1896년 7월 2일에 독립협회가 결성되어 독립문·독립관·독립공원의 건설을 추진할 때 발기인으로 위원이 되었고, 독립협회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 1901년에는 상원군수, 1903년에 육군부령(陸軍副領)으로서 친위제1연대장, 1906년 육군정령(陸軍正領)을 역임하였으며, 1908년에는 태극장(太極章)을 받았다.



보빙사(報聘使) 일행의 단체 사진

뒷줄 왼쪽부터 무관 현흥택, 최경석, 수행원 유길준, 역관 고영철, 수행원 변수, 아랫줄은 왼쪽부터 홍영식, 민영익, 서광범과 미국인 고문관 퍼시벌 로웰



영평정비(永平里善政碑, 경기도 포천)



영평리 선정비 전경

* 보빙사(報聘使)

1883년 양력 7월 15일(음력 6월 12일), 조선이 미국에 파견한 외교 사절단으로, 한국사에서 직접 바다를 건너 서양 제국(西洋諸國)을 견문하고 돌아온 최초의 사례

* 영평리 선정비(永平里善政碑)

조선 후기 영평군에 부임해 선정을 베풀었던 역대 군수와 현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공덕비로 영평초등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다. 각 비의 금석문(金石文) 내용을 오른쪽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성주 이공 지백 청간 선정비(城主李公知白淸簡善政碑) 신축 구월 일 립(辛丑九月日立)[1661년 9월 세움], 1658년 6월~1661년 7월 영평 현령 재임, ②행군수 이공 제원 영세불망비(行郡守李公濟元永世不忘碑) 병자 오월 일(丙子五月日)[1876년 5월 세움], 1868년 5월~1873년 3월 영평 현령 재임, ③관찰사 김공 굉집 영세불망비(觀察使金公宏集永世不忘碑) 갑신 사월 일(甲申四月日)[1884년 4월 세움], 1882년 10월 24일~1884년 9월 2일 경기 감사 재임, ④행군수 현공 흥택 영세불망비(行郡守玄公興澤永世不忘碑) 기축 팔월 일 립(己丑八月日立)[1889년 8월 세움], 1988년 6월~1889년 8월 영평 현령 재임, ⑤행군수 홍후 태운 애민 선정비(行郡守洪侯泰潤愛民善政碑) 기미 사월 립(己未年四月立)[1919년 4월 세움], 1893년 12월~1895년 12월 영평 현령, 1896년 8월~1902년 4월 영평 군수 재임이라 적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영평리 선정비 [永平里善政碑]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참고문헌 : 『고종실록』/『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한국사-최근세편-』(진단학회, 을유문화사, 1961)